



모듈산업문화를  
이끌어가는 호형호제

디스플레이테크 박윤민 대표 + 코렌 이종진 대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더 낫다’라는 속담은 디스플레이테크 박윤민 대표와 코렌 이종진 대표를 위한 말인 듯하다. 실제로 이웃에서 살고 있다는 두 벤처기업 대표. 모듈 관련 분야 벤처인이라는 공통점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묶인 두 벤처 의형제를 만나보자.



▲ 디스플레이테크 박윤민(오른쪽) 대표와 코렌 이종진 대표(왼쪽)

그의 미래에 대한 신념이라고 해야 할까, 부정적인 주변의반응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념을 불태우게 했다.

그것은 후배인 이종진 대표도 마찬가지다. 사범대 출신의 이대표는 어린 시절 민화영화 '태권 V' 를 보면서 영상에 대한 꿈을 가슴에 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 꿈에 대한 열기를 식힐 수가 없었다. 결국 렌즈관련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선생님께서 학생으로 돌아간 그는 졸업 후 관련 분야에 취직함으로써 렌즈기술 개발에 대한 꿈을 다시 이루는 듯했다.

**○** LCD 모듈을 개발·생산하며 모바일 기기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디스플레이테크. 1998년 창업 5년 만에 코스닥에 등록하는 저력을 보여준바 있는 디스플레이테크는 우리나라 휴대폰 LCD 모듈 산업의 30%를 선점하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왔다. 이와 함께 모바일 모듈산업의 하나인 렌즈 모듈산업 분야를 개척해 생산하고 있는 코렌은 1999년 창업하여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중견 벤처기업이다. 모바일 모듈산업에서 이 두 사람을 모른다면 벤처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두 대표의 성장은 대단했다. 성남 공단 내 벤처기업인 정기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그들은 씩씩한 연구와 도전의 벤처 경영인으로서 서로의 열정을 주고받으며 우애를 다져왔다.

### 불모지에서 개척한 모듈 벤처 기업

2003년 창업 5년 만에 코스닥 등록, 이후 2004년, 2005년 연속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디스플레이테크의 성장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998년 디스플레이(LCD)와 이를 구동하는 직접회로(IC)를 연결·구상하는 핵심 부품인 LCD 모듈은 미래투자산업의 일조로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아니었다. 당시 오리온전기의 LCD 개발팀장이었던 박윤민 대표는 LCD 모듈 산업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가 터지면서 오리온전기가 LCD 사업을 포기하자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단행했다.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모두 무모하다고 했죠. 하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무한한 연구개발 분야임을 회사를 경영하며 더욱 확신합니다.”

“막상 렌즈를 개발하는 기술에 대해 배우다 보니, 대부분의 렌즈업체가 일본업체의 개발 상품에 의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권 V의 환상적인 영상이 일본 기술이라는 것에 실망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국내에도 순수한 개발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죠.”

이대표는 영상과 화상의 국내 순수 기술을 직접 만들고 싶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그 의지는 코렌이라는 벤처기업을 탄생시키는 데 이른다.

## 신념이 만들어 낸 기업 운영

모든 산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태어난 디스플레이테크와 코렌. 그러나 열정만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노릇이다. 디스플레이테크 박윤민 대표 역시 그랬다. 기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창업은 했지만 사업은 확보된 자본이 없어 늘 안절부절못해야 했다. 그런 그에게 힘이 되어 준 것은 LCD 분야의 밑바닥부터 닦아 온 그의 개발기술 노하우와 인프라 네트워크였다. 일단 신생 단말기 업체들의 개발 지원과 외주 제작을 통해 판매를 시도하면서 이후 사업에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확장하기 시작했다.

“기회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의 회사생활과 연구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다면 지금의 디스플레이테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종진 대표는 저의 창업 시절을 되돌아보게 하는 친구입니다. 불모지와도 같았던 렌즈산업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미래를 맡긴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흔합니까?”

이종진 대표를 경영인으로서의 동지이자 거울이라고 표현하는 박대표. 그의 애정이 어린 칭찬에 이대표는 크게 손사래를 친다.

“박대표님이야말로 저에게는 벤처인으로서 꼭 닮고 싶은 자화상입니다. 경영이란 것이 연구개발과는 달리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는데, 박대표님께 조언을 구하며 혹 농치고 갈 수 있는 경영 전략과 마인드를 배우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상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이종진 대표는 사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렌즈기술 개발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의 회사 식구들이었다.

## 최상의 품질과 상품을 위한 행진

두 대표의 미래에 대한 예견이 틀리지 않았음은 조금씩 증명되고 있다. 핸드폰을 포함한 여러 모바일 기기 시장의 성장은 LCD 모듈 산업과 휴대폰 카메라 산업에 최고의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감히 LCD 산업이 향후 100년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해 가야 할 기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스플레이테크는 기술 개발과 생산에서도 0%의 불량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LCD 패널을 다양한 패키징 방식으로 조립하는 후공정 산업에 힘을 싣고 중국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박윤민 대표. 디스플레이테크보다 앞서 중국 진출을 했던 코렌의 경험과 노하우가 박대표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내실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로의 진출이 쉬운 것이지요, 박 대표님의 도전 정신과 냉철한 시장 판단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윤민 대표님이야말로 저의 든든한 이군이요 개발 욕심에 대한 원동력입니다.”

코렌의 이대표 역시 선배의 심기일전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기술 개발의 하나인 지문인식 광학모듈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국내 4개의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문인식 광학모듈 양산에 힘을 쏟고 있다.

‘열정을 매개로 맺어진 두 형제의 믿음지 않는 우애를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벤처기업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했다.



# 이제는 모듈이 대세다

휴대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들은 보다 윤택한 생활을 위해 생산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고성능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들의 사용에 없어서는 안 될 LCD 모듈과 휴대폰의 고기능 카메라 렌즈 모듈은 그 흐름의 중심에 있다. 모바일 모듈 산업 제품을 이끌어가고 있는 디스플레이테크와 코렌의 상품들로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자.

## 유비쿼터스를 향한 디스플레이테크의 태동기술



디스플레이테크는 휴대폰, MP3P, PMP 등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LCD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첨단 단말기용 디스플레이 모듈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디스플레이테크는 휴대폰 모듈 산업의 매출 증가 덕분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TFT LCD 모듈은 3개의 유닛으로 나누어지는데 기판과 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패널이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는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드라이버 및 각종 구동회로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백라이트(BackLight)를 포

함한 밀합 구조물이 있어야 한다.

디스플레이테크의 LCD는 이러한 세 개의 유닛을 기본으로 하여 좀더 섬세한 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한 세부 패널들을 가지고 있다. 주화면을 이루는 기판에는 메인 LCD와 LCD를 구동하는 LDI가 있다. 이외에도 기판의 회로에 보내는 정보를 구현하는 광원장치 BLU와 메인 보드와 연결하는 중계 보드, 보조 LCD 구동회로를 구성하는 FPC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조화면을 보여주는 서브 LCD가 있다. 디스플레이테크는 중소형 TFT LCD 패널 후공정 전문사업체로 태동하고 있다.

## 코렌, 영상 통화시대를 위한 끝없는 진화



시장 변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휴대폰 메가 화소급(100만~200만 화소)의 시장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렌이 고화소, 고성능, 초슬림화된 렌즈를 개발하고 있다.

고정 초점 타입과 오토

포커스 기능이 모두 가능하고, 근거리 접사촬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300만 화소 렌즈가 시장의 판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

렌즈의 해상력은 디지털 카메라와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의 고분해 기능을 구현하고, 고정 위치에서도 20~1000cm 이상의 넓은 영역에 이르는 렌즈의 초점 소화 능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 렌즈는 3개의 플라스틱과 1개의 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길이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고화소급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내부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비코드용 유리 렌즈를 사용한 고화소급 모델과 1/6마이크론 및 1/7마이크론 센서를 위한 소형 렌즈(VGA급)의 개발도 완료했다. 이 외에도 비코드용 렌즈, 지문인식 광학계, HMD 등의 응용 광학계의 생산도 진행 중에 있다.

코렌은 카메라용 MFGA 화소급 줌렌즈의 상용화와 고난도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향후 매출 1,000억원의 고성능(AF, Zoom) 렌즈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